



전라 지역
왕버들

이순신이 쉬던 정자 옆에 심은 왕버들

✳	지정번호	구례-15-9-1-19	✳	전남 구례군 구례읍
	지정년도	2010		봉동리 295-1
	관리기관	구례		35° 12' 31.47" N
	수령	510년		127° 27' 47.73" E
	수고	19m		
	흉고둘레	5.5m		

구례읍사무소 현관 왼쪽에 위치하는 보호수(구례-15-9-1-19) 왕버들은 물가를 좋아하는 나무이지만 지자체의 여러 기관과 주택이 들어선 곳에서 자라고 있다. 왕버들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높이둘레는 5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1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둥이 굵고 약간 뒤틀린 모양으로 비스듬한 듯이 곧게 자라고, 높이 3.5m 정도에서 2~3갈래의 가지 줄기로 갈라져 있다. 원래 4갈래의 줄기였으나 1개의 줄기가 고사하여 잘려 나갔다. 줄기 밑둥에 약간의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으나 생육상태는 양호이다. 주변은 돌을 박아 놓아 경계를 하고 있으며,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이순신과 관련이 있다. 왕버들 앞에는 '명협정(荑莢亭)'의 정자가

있다. 명협정은 이순신이 휴식을 취하던 정자를 복원한 것이다. 왕버들도 정자와 함께 이순신과 당시 장군을 따르던 많은 구례 주민의 쉼터가 되었을 것이다. 1597년 4월 26일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해임되어 백의종군의 명으로 고난의 여정을 걸을 때 구례에 들렀다. 이 때 구례현감 이원준과 군관 손인필 등 구례군민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이순신은 제철사 이원익을 만나 전시 상황을 듣고 전략을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를 하고 쉬었던 곳이 동헌과 명협정이었다.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쉼터이면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하는 문서는 예전 구례 관아에 연못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가를 좋아하는 왕버들이 있는 이곳이 연못이 있던 곳일 수도 있단다.